

“잼버리로 새만금 사업 발목잡지 말라”

전북 체육인들,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
“잼버리 파행 정쟁 멈추고 사실관계 규명해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적으로 전라북도에 물으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잼버리를 발미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마라.” 정부 여당 등의 새만금 잼버리 전북 책임론 주장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에 전북지역 체육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과 도체육회 종무단체, 시군체육회 임원 등 70여명은 30일 도체육회관 대회의실 모여 성명을 내고 “잼버리 파행 관련 책임론이 전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허탈감과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잼버리를 발미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분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을 초래한 과오와 미숙 운영 등에 대해서는 지탄 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명명백백 고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전라북도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잼버리 파행 책임 대부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 대회를 악용했다는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로 지역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다보니 체육인 그리고 전북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전북을 희생양 삼아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 전북도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전북 체육인들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이 기재부 단계에서 무려 78% 가까이 삭감됐다.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으로 전가시키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책사업임에도 잼버리 파행을 발미로 마치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과 도체육회, 종무단체, 시군체육회 임원 등 70여명은 30일 도체육회관 대회의실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대역죄인인 마냥 새만금을 백지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할 수 밖에 없으며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잼버리 파행 관련

정쟁을 멈추고 자성과 성찰 속 국정조사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냉철한 평가와 동시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57만명에 달하는 전북 체육인들을 비롯해 177만명의 전북도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허위사실, 편향,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잼버리를 발미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뉴스



9월 첫날, 남원 스포츠로 '활력'

유소년 배구대회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 등

남원시가 전국의 스포츠 팬들을 지역으로 이끌어 남원을 스포츠 명품도시로 육성하고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주말 동안 활력 넘치는 스포츠 대회가 9월의 첫날부터 남원에서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와 전국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 대회를 개최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는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는 전문체육부와 스포츠클럽부로 개최되며, 전문체육부 5팀(초등부)은 남원중앙초 배구 전용 체육관에서 9월 1일~3일, 스포츠클럽부 22개팀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일과 3일 2일간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또한, 사랑의 광장 특설관에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남원시장기 제16회 Korean Best G.P 킥복싱대회'는 전국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 관중과 규모면에서 최고의 대회로, 아마추어, 신인전 타이틀 매치로 진행되며, 특히 2일(토)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메인 경기는 이름을 떨치고 있는 최강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와 킥복싱대회'는 우리 남원을 스포츠 명품도시로 알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프로농구 KCC, 부산으로 연고지 변경

KBL, 이사회서 변경안 승인

2001년부터 이어온 프로농구 KCC 전주시대가 22년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농구연맹(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KCC전주 이지스 농구단 연고지 이전 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이전설과 관련해 전주시와 KCC의 입장 차가 팽팽하다. 전주시는 “일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 훌륭한 사실이 없다”고 비난하며 사실상 환승 이별을 당했다며 역할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에 KCC 측은 “전주시와 신뢰가 깨졌고 더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산 이전에 폐기를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CC구단 측이 대화 자체를 봉쇄하고 전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적어도 지난 23년간 전주에서 (KCC가) 팬, 시민과 함께 했는



김인태 전주 부시장이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행여나 가더라도 전주시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완전히 차단 당했다. 시 입장에서 당혹스럽고 안타깝고 일정 부분 서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급하게 KCC 연고지 이전 문제로 이사회에 올라갔지만, KCC 구단 관계자를 만나지도 못했다”며 “KBL 총재를 만나 전주시의 입장과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으나 결국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축 체육관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 신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토지 매입과 투자 심사, KCC 협의 사항 반영 등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2023년 신축 경기장이 지어질 때까지 기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토교통부와 모색했고 경기장을 비워야 하는 건 아나라는 걸 KCC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KCC 최영길 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구단 측이 체육관을 직접 지으라는 지역 국회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 체육관은 시에서 짓는 거고,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전용 구장을 지어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사례도 없다. 아마 그렇게 내놓고 얘기할 의원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시장은 “23년간 동고동락한 KCC가 떠나서 아쉽게 생각하고 지키지 못해 전주 시민과 팬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스포츠 정책을 쇠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도민체전 준비 마무리 박차

김제시, 최종 현장 점검 나서
개회식 당일 사고 대비 만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최종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대회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종 현장 점검은 정성주 시장 주재로 현장 안전관리 계획 보고 및 현장 실사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주 경기장인 시민운동장 외에 종목별 경기장을 현지 점검하고 개회식 행사장에 대한 총괄적인 현장 점검을 가졌다.

개회식 당일 선수와 관객 1만여 명이 운집할 전망임에 따라 안전과 방역, 위생 등 안전 대비책에 대한 내용을 직접 점검하고,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19개소와 종합상황실 등 12개 행정부서 등 행사

장에 대해 꼼꼼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또한, 도민체전 선수와 관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0여여원을 투입해 시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완료했다.

이날 정성주 시장은 현장실사에 직접 참여해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직접 점검하고, 개회식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또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축제로, 김제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제 대회개회를 위한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고, 대회 기간 동안은 마음으로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하며, 김제시인과 전북도민 모두 함께 하나되어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도민 : 2023. 9. 1. (금) - 9. 3. (일) 장애인 : 2023. 9. 15. (금) - 9. 17. (일)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2023. 9. 1.(금) 18:00 / 김제시민운동장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2023. 9. 15.(금) 15:00 / 김제실내체육관